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의 공간적 변증법

Spatial Dialectics of Transnational 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정현주*

널리 알려졌다시피 최병두 교수는 한국을 대표해온 진보적 공간연구가이자 끊임없이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 지식을 생산해온 예외적으로 부지런한 학자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그의 연구는 동시대 (서구) 마르크스주의 공간연구자들(데이비드 하비 등)의 문제의식의 흐름과 변천을 반영하지만, 유일하게 이들과 분리되어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 속에서 태동한 연구 분야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다문화와 초국적 이주에 대한 연구이다. 마르크스주의 공간이론가들의 논쟁에서 우회하여 적극적으로 사회문화 및 포스트담론을 수용하는 지점도 바로 이주와 다문화 연구에서이다. 이를 통해 그의 이론적 지평은 르페브르와 하비를 경유하여 라투르와 데리다를 포섭하는 그야말로 전천후 확장을 보여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다양한 이론과 주제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문제의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공간성에 대한 탐색이다. 때로는 지리학으로, 스케일로(또는 다규모), 지구-지방화, 또는 네트워크로 개념화된 다양한 공간성이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부교수(jung0072@gmail.com)

의 구성에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개입하는 지점을 집요하게 포착하고자 한 것이 바로 최병두식 다문화 연구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그의 방대한 연구를 담기에는 너무 제한적인 지면이지만 그 일부나마 스케치하고 이를 평가하는 작업을 통해 많은 후학들이 최병두식 다문화 연구를 발전적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이 글을 열고자 한다.

최병두 교수의 이주 및 다문화 연구는 대략 정치철학 및 윤리와 같은 보편적 차원의 논의와 이주자의 사회적 정착과 네트워크와 같은 중범위적 차원의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이주 연구(특히 결혼 이주자 연구)가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스케일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그의 연구를 대표하는 주제를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공간

최병두 교수의 다문화 연구를 상징하는 개념어는 단연코 다문화공간일 것이다. 흔히 알고 있는 다문화주의 대신 다문화공간이라는 개념을 굳이 제안한 이유는 공간이 다문화주의를 구현하는 현장이자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다문화 현상이 공간적으로, 규모적으로(*scalar*) 불균등하게 작동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다문화공간’은 단순히 다문화주의가 공간에서 발현된다는 경험적 관찰을 넘어 좀 더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다문화공간은 이데올로기적 수사라고 종종 지탄받는 다문화주의의 태생적 본질을 드러내는 개념어이다. 마르크스주의 학자 지젝은 다문화주의를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적 논리”(Zizek, 1997)라고 비판한 바 있다. 최병두(2009; 최병두 외, 2011) 역시 다문화주의가 노동의 초국적 이동을 합리화하고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본축적의 조절적 기제

로서 작동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마치 유명처럼 지구를 배회하며 보편적이고 합의된 원칙이라는 선입견을 주는 실체 없는 ‘주의(ism)’ 대신 공간이라고 명명함으로써 자본 순환의 물질적 토대를 명시할 뿐 아니라 그것이 추상적으로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와 저기에서 구체적으로, 동시에 불균등하게 생산되는 것임을 암시한다. 이로써 다문화공간의 작동 역시 르페브르와 하비가 말한 공간을 통한 자본축적의 하위 개념이라는 이론적 위치를 지니게 된다.

둘째, 그러나 최병두 교수가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한 것은 공간이 지닌 실천적 함의일 것이다. 호네트 등의 ‘인정의 정치’ 개념으로 다문화주의를 능동적이고 과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최병두 교수는 인정투쟁의 장으로서 다문화공간의 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다. 즉 정부 주도의 다문화주의 대신 초국가 시대의 대안적 윤리로서 인정(recognition)의 정의를 구현할 현장이자 이론적 매개가 바로 다문화공간이라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자본주의적 지구화의 결과로서 생산된 다문화공간이라는 이해는 이러한 인정투쟁이 재분배의 정치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음을 함의하기도 한다. 재분배의 정치를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 학자로서 그의 정체성과 신념이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셋째, 다문화의 공간적 이해는 지구-지방화 시대에 중층적으로 조성되는 소속감과 시민권을 설명하기에도 용이하다. 다문화적 시민성을 주창한 다문화주의 정치철학자 킴리카(Kymlicka, 1995)는 시민권이 국가 수준에서 규정되는 제도적 차원 이외에도 실제 생활영역에서 협상되는 사회문화적 권리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최병두(2009)는 지방적·국가적·지구적 차원에서 시민성이 중첩적으로 구성되는 다규모적 시민성을 주창했다. 다문화주의가 초국가적 시민권을 방법론적 국가주의에 기반을 두어 정의하는 모순을 보였다면 다문화공간은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2. 다문화공간의 변주들: 상호문화주의에서 환대의 지리학으로

상호문화주의와 환대의 지리학은 다문화주의의 윤리적 기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철학적 탐색의 결과로서 제안되었다. 관용과 인정에 기반을 둔 다문화주의 윤리는 차별의 극복보다는 병존을 허용하는 소극적 통합을 지향하므로 결국 거주지 분리와 같은 분리주의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 상호교류와 섞임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상호문화주의가 다문화주의에 대한 대안적 정책으로 유럽 등지에서 제안되고 있는 현상을 소개했다(최병두, 2014). 그러나 상호문화 도시정책이 현실적으로는 창조도시론과 정책적 맥을 같이하면서 도시기업가주의의 한 형태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그 이론적 유의성과 공간에 대한 함의를 추출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최병두, 2014).

다문화주의의 윤리적 대안에 대한 탐색을 통해 최병두(2012; 2017c)는 데리다의 환대(hospitality)라는 윤리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세계시민주의를 제안하기에 이른다. 고전적 세계시민주의는 칸트가 『영원한 평화』 등을 통해 주장한 바 있는, 경계를 넘나드는 이방인에 대한 환대를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는 세계연방제를 의미한다. 데리다는 주체와 객체가 존재론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라는 포스트구조주의적 인식에 기반을 두어, 칸트의 고전적 세계시민주의가 전제 조건부 환대(최소한 특정 국가에 소속되어 경계를 넘는 합법적 주체에 대한 환대)가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무조건적 환대를 주장한다(최병두, 2017c). 이 무조건적 환대야말로 말로 도래할 민주주의의 윤리이자 탈지구화시대 세계시민권을 상상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최병두(2012)는 이러한 환대 개념이야말로 주체와 객체, 안과 밖, 원주민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변증법적으로 상호전환되는 접촉 공간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는데, 이에 대한 탐색이 바로 그가 구호처럼 제안한 ‘환대의 지리학’(최병두, 2018)일 것이다.

3. 다문화공간에서 네트워크 공간으로: 초국적 이주의 분석틀로서 행위자-네트워크이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초국적 이주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최병두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최근 실험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그 연구 결과를 엮은 책이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총서로 출판되기도 했다(최병두 외, 2017). ANT를 통한 최병두 교수의 관계적 전환은 몇 가지 지점에서 기존의 이주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읽혀진다. 초국적 이주연구의 딜레마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지적되어 왔다. 전통적 국제 이주 연구에서 보이는 흡입-배출 요인, 송출국-유입국이라는 이분법 및 방법론적 국가주의의 한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초국가주의가 국가의 역할과 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 대부분의 연구에서 구조와 행위, 거시와 미시라는 분석상의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는 설명 틀이 부재하는 현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연계망(네트워크) 개념이 가져온 공간의 소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최병두 교수는 ANT를 통해 이러한 한계들을 한꺼번에 극복하고 초국적 이주 연구의 보편적 분석틀을 정립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위자-네트워크와 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번역과 동맹’, 이러한 행위자-네트워크들의 집합체인 ‘아상블라주’ 개념에 주목해 이를 사례 연구에 접목하여 이들 개념의 유용성을 탐색하기도 했다(최병두, 2015; 2017a; 2017b). 가령 음식-네트워크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번역역과 경계넘기를 고찰함으로써 미시적 권력 관계가 일상 생활공간에서 작동하는 양상을 고찰하고 네트워크 공간이 초국적으로 복제되는 현상을 설명했다(최병두, 2017b). 또한 대구 인근 지역 외국인 노동자를 사례로 이주노동에서의 중요한 장인 가정, 국가, 일자리를 각각의 아상블라주로 개념화하여 재해석하는 경험 연구를 제시하기도 했다(최병두, 2017a). 이러한 최근의 연구 성과들은 질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는

등 방법론적으로도 변신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의 연구사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4. 질문과 제언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초국적 이주 연구의 틀로서 ANT의 활용은 몇 가지 점에서 의문을 자아낸다. 먼저, 새로운 개념어와 사고방식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 외에 실제적인 초국적 이주 현상을 이러한 개념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얻어지는 학술적 성과 혹은 함의는 무엇인가? 이는 ANT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 즉 “실체보다는 존재론적 논의의 틀로서만 유의성을 가진다”(최병두 외, 2017: 31)는 오랜 비판을 비껴 갈 수 있는 돌파구를 사례 연구를 통해 마련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연관된 질문으로써, ANT 개념들을 통해 서술되는 현상, 가령 결혼이주여성의 요리-하기 및 음식-먹기를 통해 만들어지는 음식-네트워크나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 이상블라주의 구성과 재구성이 연구대상에게 주는 실천적 함의는 무엇인가? 지구화시대 새로운 하위주체인 결혼이주자와 노동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이들에 대한 어떤 윤리적 의무를 지는지, ANT를 원용한 최병두 교수의 최근 연구들은 이에 대해 어떤 답을 제시하는지 궁금해진다. 보통의 ANT 연구가라면 그다지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ANT 자체가 이를 지향하는 이론이 아니므로) 마르크스주의에서 출발한 비판적 공간이론가의 학문 여정의 후반부를 장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뭇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더불어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의 위상학적 거리는 어떻게 연구 결과에 반영되는가? 이 질문은 ‘연구 이상블라주’의 재현 및 권력 관계와 관련된 질문이다. 즉 마치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을 맡은 성우같이 대

상과의 객관적 거리를 유지한 채 스토리텔링을 하는 해설자로서 설정된 ANT 연구자의 위치성에 대한 성찰과 해석 또한 새로운 방법론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제기해본다. 왜냐하면 연구대상에 대한 임파워먼트 이슈와 연구자 및 연구대상 간의 관계에 대한 논쟁들이 질적인 연구방법론에 기반을 둔 이주 연구에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지만 이 분야에서는 아직 제기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최병두 교수의 다문화연구 전반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관련된 후속 연구 제언을 하고자 한다. 최병두 교수의 가장 큰 기여는 이론적 틀이 사실상 부재하다시피 하는 초국적 이주 연구에서 그 결핍을 채우려는 다양한 시도라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평가한다. ANT에 대한 탐색도 그런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시도라고 본다. 특히 초국적 이주의 과정에서 공간의 개입을 이론화할 수 있는 개념을 개발해 온 점은 타학문 연구자들과의 학제적 연구를 위해 매우 중요한 토대를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틀’ 생산에 주력한 연구 궤적으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가 추상적이고 객관화를 지향하는 데 머물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지점이다. 대부분의 이주 연구가 너무 경험기술주의로 흐르고 있는 게 문제라면 최병두 교수의 연구는 그 극단적 반대에 위치하는 셈이다. 이는 그 간극을 풍부하게 메우는 것이 후학들의 역할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최병두 교수가 선보인 몇 편의 사례 연구는 이론을 현장에 적용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험대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이 지구지방적 시민권에 시사하는 바를 다룬 사례 연구이다(최병두, 2011). 다문화적 수용에서 한국과 유사한 정치문화 지형을 형성해온 일본의 사례 연구이기에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꽤 극하게 많지만, 무엇보다 국지적 관용과 국가적 배제의 결과로 조성된 제한적 시민권이 지닌 한계점은 최병두 교수가 누차 주장해온 지구지방적 시민권의 실체와 한계, 역으로 잠재적 가능성을 가늠해 보게 만

든 흥미로운 지점이었다. 특히 중앙정부 주도의 다문화 정책(이주여성
들을 대상으로 하는)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과연 다문화적 시
민권과 주체, 그것의 조성 스케일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가 향후 중
요한 정책적 과제로 남을 것이다.

참고문헌

- 최병두. 2009. 『다문화 공간과 지구·지방적 윤리: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 공간에서 인정을 위한 투쟁의 공간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5권 5호, 635~645쪽.
- _____. 2011. 『다문화공생: 일본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지역사회의 역할』. 푸른길.
- _____. 2012. 『이방인의 권리와 환대의 윤리: 칸트와 데리다』. 《문화역사지리》, 제24권 3호, 16~36쪽.
- _____. 2014. 『상호문화주의로의 전환과 상호문화도시 정책』.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4권 1호, 83~118쪽.
- _____. 2015.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위상학적 공간 개념』. 《공간과사회》, 제53권, 125~172쪽.
- _____. 2017a. 『초국적 노동이주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이상블리주』. 《공간과사회》, 제59권, 156~204쪽.
- _____. 2017b. 『결혼이주가정의 음식-네트워크와 경계 넘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3권 1호, 1~22쪽.
- _____. 2017c. 『다문화사회의 윤리적 개념들과 공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3권 4호, 694~715쪽.
- _____. 2018. 『초국적 이주와 환대의 지리학: 이방인의 환대와 정착을 위한 공간의 변증법적 전환』. 푸른길.
- 최병두·김연희·이희영·이민경. 2017. 『변역과 동맹: 초국적 이주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사회공간적 전환』. 푸른길.
- 최병두·임석희·안영진·박배균. 2011. 『지구·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푸른길.
- Zizek, S. 1997. "Multiculturalism, or the cultural logic of multinational capitalism." *New Left Review*, 225, pp. 28~51.